

들어가기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행2:14~36)를 듣고 난 후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오순절에 교회의 탄생과 함께 베드로는 공중 앞에서 처음으로 설교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현대 설교학의 관점으로는 낙제점에 가까운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전면에 투박한 베드로의 설교를 내세운 것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둘러보기

성도의 신앙은 삶의 모든 요소와 현장으로 확장되는 선교적 제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직설적이고 투박하고 거칠었으며, 논리력과 설득력이 부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교로 하루에 3000명 이상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 왔습니다. 설교는 사람의 논리력과 감화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소위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나 가려운 데를 긁어 주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고백해야 합니다.(2:37) 설교는 청중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felt needs)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real needs)에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need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설교이어야 합니다.

Q. 오순절에 한 베드로의 설교(행2:14~36)를 읽어봅시다, 설교의 은혜를 받고 나타나는 첫 번째 나타나는 합당한 반응은 무엇입니까?(행2:37)

베드로는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던진 화두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2:38)입니다. 여기에 먼저 회개가 있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회개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었던 영혼을 살려 내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죽었던 감각을 살려 내셔야 비로소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설득하기 위하여 수사학적으로 인간의 언어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회개를 앞에 두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베드로는 “세례를 받으라”고 제시합니다. 세례도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세례는 결혼식과도 같습니다. 결혼식은 만 천하에 부부가 되었다고 공포하는 사건입니다. 결혼식이 없더라도 부부가 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신부로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1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정혼식을 한 후 신랑은 신부에게 편지 한 통을 남기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한 삶을 준비합니다. 그 편지는 신랑에 관한 책인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성경을 읽는 일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Q. 베드로가 설교후에 사람들에게 받으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행2:38,40) 이 말씀은 인간을 위해 수사학적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는데, 회개는 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역사입니까?

그러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온 성도들에게 일어난 삶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제일 첫 번째 변화는 호주머니입니다.(2:43~45) 존 웨슬레는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고 지적합니다. 기독교는 철학의 사유나 관념의 놀이가 아니라, 삶의 실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생 남을 밟고 올라가면서 살았던 뽕나무 위의 삭개오에게 던진 첫 마디가 “내려오라”입니다.(눅19:5) 삭개오는 회개하여 그의 삶에 물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성전의 모임이 집으로까지 연장됩니다.(2:46) 신앙이 삶의 현장으로까지 이어져 연장됩니다. 교회에서 은혜가 이루어졌으면 가정, 일터, 학업의 현장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선교적 제자로 전환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기쁨으로 가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Q.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타난 성도들의 변화에 대해 확인해봅시다.(행2:44~47) 삭개오가 회개했을 때 나타난 결단이 무엇이었습니까?(19:8)

나오기 그래서 성도가 가는 곳마다 칭찬이 있습니다.(2:47)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눅7:1~10) 유대의 장로들이 로마 백부장을 칭찬하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를 칭찬하였습니다. 백부장은 당시 천한 계급인 하인을 “내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백부장에게는 생명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생명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백부장에게는 구원에 응당한 헌신과 그에 따른 칭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음의 기쁨을 일터로 가정으로 학업터로 확장해야 합니다.

Q.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종을 낮게 해달라는 백부장에게 향한 칭찬은 무엇입니까?(눅7:9) 그러한 구원받은 백부장이 삶에서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었습니까?(눅7:3~5)

▶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 관리에 대해 돌아봅시다. 자신의 현금 생활과 재정 습관에 대해 서로 나누어봅시다. 성도로서 어떻게 물질 사용을 할지를 각자 결단하며 발표해봅시다.

▶ 제주, 동해 선교에 이어 해외선교와 국내선교가 계속 남아있습니다. 남은 여름선교에 대해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에 대해 서로 나누며 기도합니다.

기도 : ♪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삼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의 선교적 제자됨을 위해

담임목사님의 강단사역과 말씀의 사역을 위해

남은 여름선교의 모든 일정의 준비와 안전, 복음전파, 영육간의 강건함 위해

모든 교회학교와 이번주간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각 공동체의 모임을 위해